

리버데일 한의원 한의사 : 임 베로니카 3263 Johnson Ave. Bronx, NY 10463 (718)796-0267/ 3636	맥 한의원 한의사 : 김 글라라 침, 한약으로만성병치료 224E 204St Bronx (718) 563-1209	이 준 승 치 과 Medicaid Accepted 503 S Broadway #250 Yonkers NY 10705 (914) 376-4033
뉴저지동해수산 EastSeafood Restarant 445 Grand Ave PalisadsPark, NJ07650 Tel 201-461-4447	뉴욕라이프보험 김 여경(헤레나) (203) 629-0266(O) 각종 보험, 투자	리사 휴대폰 국내무제한, 한국5시간 월40\$ (세금포함) (718)205-1200 Kim
중앙 장의사 하 봉 호 (718) 353-2424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Century 21 Royal 부동산 Sales, Rental Mija (세실리아) Son (914)310-6990(C)	뉴욕정비(브롱스) 2801Webster (718) 295-3252
통증 중재의학 이한식 제통전문병원 신경 차단술 요통, 허리 디스크 및 각종통증 (718) 224-1600 43-24220Pl.Bayside, NY 11361	아리랑 여행사 ARIRANG TRAVEL SERVICE INC. 표 : 김 율 환(Francisco) 영 희(Julie)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22층 1-212-563-3350 1-800-223-6225	김태복 통증 한의원 통증 전문 39 W 32 St Suite300 맨하탄 (212) 947-8382(B) 뉴저지(201) 592-5514(H)
Edward D Jamis, Jr 장 의 사 조용하고 주차, 교통편리 베이사이드 노던 209가 (718) 224-2390 (888) 224-6088	정일면(스테파노)지과 콜롬비아 대학교 졸업 알버트스(시립병원 앞) (718)426-4343, (주자민비) 베이사이드 718-352-3434	HOPE AGENCY INC. 희망 보험사 가계, 빌딩, 주택, 자동차 트럭, 벤, 생명, 교육, 은퇴 (718) 961-5000 김 모세
FirstAmerican Landing 부동산매매에서 모기지 대출까지 주택상가 사업 체) 정영오 루가 201-461-9999 917-232-8890	김진상 3S 교정치과 아동 및 성인 교정 전문 ◎ 뉴욕, 플러싱 : (718) 460-1802 ◎ 북부 NJ : (201) 840-1123 ◎ 중부 NJ : (732) 548-4848 김 진상 (빈센트)	김철 공인 회계사 Young&Jullan, LLC 150-05 노던(150가) 2F1 (플러싱) (718)888-1217
컴퓨터 출장수리 감시카메라/인터넷 전화설치/수리 이홍석(사도요한) (201) 336-2522	핑크 미용실 매주 일요일(주일)은 쉽니다. 3135 Grand Concourse (between 204 & 205 St.) Tel. (718) 563-6997	한미 가톨릭 연방 신용조합 월-금 8:00 AM-4:30 PM 일 9:00 AM-2:00 PM (718)353-7676 144-19 38th Ave Flushing, NY 11354
센츄럴 헤어살롱 (구 브롱스소망이발관) 남, 여 이발 및 미용 747센츄럴파크(100번도로) (914) 725-0747	김영관 회계사무소 ● 개인 / 법인 세무 보고 면 회사설립 사업허 공증, 번역 종업원상해 (718)961-4024(2)	광고모집

제1669호

2011, 7, 3

북 부 뉴 욕 성 남요한 한인 가톨릭교회 Korean R.C. Church of St. John Nam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마태오 10, 17 - 22)

주임 신부 : 남 시몬(해근)
 부주임신부 : 이 안드레아(환규)
 본당 수녀 : 김 소피아(마리아)

교회 시간표

주일 미사 : 오전 8시, 11시(본미사), 12시 30분(학생미사)
 평일 미사 : 매일 오전 9시, 수요일 오후 8시
 고백 성사 : 주일 11시 미사 전.후
 주일 학교 : 주일 오전 11시
 한글 학교 : 주일 오전 10시
 예비자교리 : 주일 오전 9시 30분
 병자봉성체 : 매월 첫 금요일
 유아 영세 : 매월 둘째 토요일(한달전 신청)

3663 White Plains Road Bronx, NY 10467
 사무실 : (718) 231-2414 수녀님 : (914) 265-0117
 회 장 : (914) 707-3182 Fax : (718) 405-0053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

ㄹ 입당송

이 성인은 하느님의 법을 위해 죽기까지 싸웠으며, 악인들의 말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는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

<대영광송>

ㄹ 제1독서(너희는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즈카르야를 살해하였다
(마태 23,35).)

역대기 하권의 말씀입니다. (24,18-22)

그 무렵 ¹⁸ 요아스 임금과 유다의 대신들은 주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의 집을 저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다른 우상들을 섬겼다. 이 죄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가 내렸다. ¹⁹ 주님께서서는 그들을 당신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셨다. 이 예언자들이 그들을 거슬러 증언하였지만,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²⁰ 그때에 여호야다 사제의 아들 즈카르야가 하느님의 영에 사로잡혀, 백성 앞에 나서서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주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그렇게 해서는 너희가 잘될 리 없다. 너희가 주님을 저버렸으니 주님도 너희를 저버렸다.’”

²¹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거슬러 음모를 꾸미고, 임금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집 뜰에서 그에게 돌을 던져 죽였다. ²² 요아스 임금은 이렇게 즈카르야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바친 충성을 기억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였다. 즈카르야는 죽으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보고 갚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ㄹ 화답송 (시편 31(30),3ㄷ-4.6과 7ㄴ과 8ㄱ.17과 21ㄱㄴ(● 6ㄱ))

● 주님,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1. 이 몸 보호할 반석 되시고, 저를 구원할 성채 되소서.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성채이시니, 당신 이름 위하여 저를 이끌어 주소서. ●

2.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오니, 주님, 진실하신 하느님, 저를 구원하소서. 오로지 주님만 믿나이다. 당신 자애로 저는 기뻐하고 즐거워 하리이다. ●

3.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당신 앞 피신처에 그들을 감추시어, 사람들의 음모에서 구해 내소서. ●

ㄹ 제2독서 (우리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깁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5,1-5)

형제 여러분, ¹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² 믿음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³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 ⁴ 인내는 수양을,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 ⁵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ㄹ 복음 환호송 (마태 5,10)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ㄹ 복 음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0,17-22)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¹⁷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¹⁸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¹⁹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에 너희에게 일러 주실 것이다.

- 20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 21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 22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신경>

ㄱ 영성체송 (마태 16,24)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전례

	미사해설	제1독서	제2독서	신자기도
7/ 3 8시	이 상자	김 부균	방 경숙	박 미순
11시	이 창섭	양 명상	양 정남	이 종숙
7/10 8시	홍 승표	김 민환	김 정옥	홍 명숙
11시	최 일환	김 형남	김 여경	최 금연

복 사 : 이 재우 & 이 재영 김 현건 & 윤 정훈
봉헌자 : 유휴현&이재웅 가족 다음주 : 최고남&이강민 가족
헌금봉사 : 정의의 거울 Pr 다음주 : 은총의 중계자 Pr
운전봉사 : 문 명남 다음주 : 김 영태
본당 밴 운행시간 : Yonkers 노인 아파트 앞(1,2호차 - 9 : 00 출발)
Grand Concourse(옛 성당 건너편) - 9 : 00 출발

주간미사 신청하신 분들

본당신부님(생미사) : 강마가렛[순연] 봉헌
경로잔치 도움주신분들(감사미사) : 회장단 봉헌
윤세식(생미사) : 강마가렛[순연] 봉헌
김자환(생미사) : 양리카드로[경식] 가족봉헌
자녀들을 위한(생미사) : 박다니엘[경룡], 박아네스 봉헌
박누갈다[경애](연미사) : 박아네스, 박다니엘 봉헌
윤멜리디나(연미사) : 윤안토니오[광석] 가족봉헌
불쌍한 연옥영혼을 위하여(연미사) : 한빅토리노[성천]봉헌

성가

입당 : 순교자 찬가 (성가283)
봉헌 : 성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 노래 (성가287)
성체 : 천사의 양식(성가187)
파견 : 순교자의 믿음 (성가286)

교회 소식



(1) 본당 야유회

다음주일(10일) 본당야유회가 11시미사후 F,D,R PARK (파킹장 4CS) 에서있습니다. 즐거운 하루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골프가지 마시고 가족들과 구역원 들과 함께 즐거운 하루가 되도록 협조합시다.

- 최 준 프로께서 칩핑 레슨이 있으며 골프체교환도 있습니다. 안 쓰시는 골프체가 있으시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2) 영세식 소식

지난 6개월 동안 준비한 예비자의 영세식이 17일(주일) 11시 미사 중에 있습니다.

(3) 새 예비자 교리시작

7월24일(주일) 아침 9시30분부터 새예비자 교리가 시작됩니다. 가족이나 이웃중에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인도하도록 합시다.

(4) 미 동북부 울뜨레야 소식

내일(월) 뉴저지 103위 성당에서 아침9시부터 지구 울뜨레야가 시작됩니다. 당일 본당에서 버스를 대절했습니다. 꾸르실리스파 가족들은 아침 9시까지 성당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5) 교구청 기금 (Stewardship Appeal)

교구청기금을 아직 미납하신 분은 (교무금1달치) 회계연도 8월말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6) 가톨릭 방송

지난주에 방영된 본당탐방 (성 남요한성당)편을 오늘 11시미사후 친교실에서 다시 보여드립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7) 2011 청년 성령대회

7월23(토)-24일(주일) 까지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주제로 뉴저지 Paramus Catholic High School sptj 18세이상 청년들
성령대회가 있습니다. 참가비는 \$50 이며(6/30 까지 \$40) 문의는 Tel
(201) 947-4717 이나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 이번달(7월) 커피및 친교실 청소는 뉴저지 구역입니다.

다음달(8월)은 동부 브롱스 구역입니다

2011 경로잔치 도움 주신 분들

장윤화 200	함봉국 100	강서회관 200	박용선 100
문민영 350	이창섭 100	지휘남 100	김철재 100
손달구 100	김일규 100	서진협 100	성모회 200
정복기 200	최 필 200	이국진 100	윤광석 100
박중환 60	조용국 100	대건회 200	서균덕 100
임석태 200	김부균 500	한광희 100	이종언 100
정철수 100	김 철 100	김원식 100	김만석 100
한성천 100	마르꼬회 100	김상태 100	공연수 300
김을수 100	권의진 200	골프회 100	김호태 100
방문덕 100	김형남 100	이재웅 100	양경식 100
유휴현 100	박세복 100	울뜨레야 100	꾸리아 200
정순조 100	김진우 100	지창욱 100	이준섭 100
윤용태 200	양명상 100	산수갑산 300	고향집 100
핑크미용실 100	뉴욕정비 100	브롱스노인회 100	
이준치과 100			

물품후원

한상수 윤구식 한치남 이수학 권의진 조현중
김관희 이무송 김영태 노경수 공연수 장로사
이병학 한마트 김부균 신대철 신희원 김윤환
도움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회장단 일동-

우리들의 정성

주일헌금 : \$1,978.00

교육헌금 : \$4,318.49

교 무 금 : \$ 2,550.00

조부자(5-6) 장윤화(6-7) 윤용태(5-6) 김문자(7)

이호원(1-6) 서진협(4-6) 오정자(완납) 김재찬(5-8)

추성태(5-6) 김기자(완납) 조현중(1-6)

Stewardship Appeal : \$240.00 누계 : \$ 7,295.00

이호원 박숙희 유영애(봉헌) 김기자

성체조배

성체조배는 감실 안에 모셔놓은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 인사를 드린다는 뜻인데 사실은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과 나 단둘이서 지극히 사적인 대화를 하는 것을 말한다. 성체조배는 가장 좋은 기도이고, 아울러서 성체조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입는다고 한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신자들은 성당엘 자주 가지 못하기 때문에 성체조배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주일날 성당에서 미사 참례를 할 때뿐인 것 같다. 몇 년전에 작고하신 마더 데레사 수녀님께서 성체조배에 대한 당신의 경험담을 텔레비존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수녀님께서 경영하시는 인도의 한 시골마을에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병원이 있었다. 그곳은 도시에서 좀 떨어진 성당이 없는 빈민촌이었기 때문에 수녀님들은 미사참례도 자주 할 수가 없었다. 수녀님들은 몹시 힘들어했고,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기계처럼 일만 하고있었다. 마더 데레사 수녀님께서서는 그렇게 힘들어하시는 수녀님들이 어떻게 하면 좀 기쁘게 일을 할 수가 있을까? 궁리를 하시다가 수녀님들에게 성체조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셨다. 그래서 병원 한구석에 자그마한 방 하나를 마련해서 그곳에서 좀 떨어진 도시의 한 신부님께 한 달에 한 번씩 미사를 드려주실 것을 부탁하시고는 미사 후에 성체를 감실 안에 모셔놓았다. 그리고는 수녀님들에게 시간이 있을 때마다 성체조배할 것을 권하셨다. 수녀님들을 틈틈이 성체조배를 했고, 한 한 달이 지나면서부터 수녀님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돌면서 생기가 돌아나기 시작했다고 데레사 수녀님께서서는 말씀하셨다. 수녀님들은 성체조배를 하면서 삶의 기쁨을 되 찾은것이였다. 하긴 내가 아는 한 신부님께서도 매일 아침저녁으로 성체조배를 하면서 사제의 길을 계속 간다고 하신다. 성체조배는 우리가 주님과 마주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들, 아무에게나 말 할 수 없는 지극히 사적인 일들을 말씀드릴수 있으니 사실 생각해보면 그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 모른다. 정말이지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성당이 있어서 아무 때나 성체조배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 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신자들은 성당엘 한 주에 한 번 주일 미사에 참례하기 위해 갈 뿐이니 그 때 성체조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미사가 시작되기 몇 분전, 또는 미사를 마치고 감실안 성체 안에 계시는 주님께 지난 한주간동안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그리고는 그 동안의 나 자신을 반성해보면서 주님앞에 미안했던 일, 어려웠던 일, 고마웠던 일 등 등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한 주간을 주님께 맡기면 더 할 나위 없는 은혜로운 성체조배가 되겠다. 물론 나 자신 마음이 가벼워짐은 말할 필요도 없다. 정말이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좀 자주 찾아 뵙고, 나의 사정 이야기도 하고, 위로도 받아야 되겠다. 정말이지 북한, 중국같이 성당이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에 비하면 마음만 먹으면 성당엘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큰 은총 속에 사는지 모르겠다. 우 뭇은